

김의성 “악역만 하다 오랜만에 응원 받아…통쾌하네요”

SBS 금토극 ‘모범택시’ 종영 인터뷰

가해자 단죄 무지개운수 ‘장성철’ 역

“배우로 재밌게 살기…100점 중 85점”

“시청자들의 응원을 받은 첫 작품인 것 같아요. 처음 받는 느낌이라 좋았고 재밌었죠.”

그동안 여러 작품에서 악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배우 김의성이 ‘모범택시’에서는 두 얼굴을 지닌 무지개운수 대표 ‘장성철’로 새로운 변신을 선보였다.

김의성은 최근 진행한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 종영 인터뷰에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응원을 받고 사랑을 받아 뿌듯하고 행복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모범택시’는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이다. 동명의 웹툰이 원작이다.

“장성철” 키워드는 분열…선과 악 양면 모두 갖고 있어

김의성은 “우연히 회사 사람들과 사적 복수 소재를 얘기한 날 이 대본을 받아서 깜짝 놀랐다. 기획이 재밌었고, 바로 결정했다”며 “시청자들의 요구에 잘 응답한 작품”이라고 밝혔다.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답답함과 갈망을 잘 찾아내 대담해줬던 것 같아요. 실제 법이 공평한가의 문제를 차치하고,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 걸 건드려서 대리만족을 줄 수 있는 재밌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죠. 어떤 때는 위로를, 어떤 때는 자극을 주면서 시청자들 요구에 응답해 좋아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사적 복수라는 측면에서 조심스러운 면도 있다. “조금 위험성이 있는 주제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 히어로물은 사적 복수를 기본으로 깔고 있고, 사회 고발의 영역보다는 시청자들에게 통쾌한 기분을 제공하는 관점으로 받아들였죠.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거지, 대안을 제시하는 건 아니었죠.”

김의성은 극 중 가해자의 단죄를 진두지휘

하는 무지개운수 대표 ‘장성철’ 역을 맡았다. 장성철은 연쇄살인범에게 부모님을 잃은 후,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을 단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인 파랑새재단을 운영하며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돕는다.

그는 “이 인물에 어떻게 접근할지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다”며 “대본을 계속 보면서 키워드를 뽑은 게 이중성, 분열이었다”고 말했다.

“낮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밤에는 흔들림 없이 차갑게 가해자를 벌주죠. 둘 중 뭐가 진짜일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당연히 둘다였죠.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게 이 인물로 들어가는 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존하기 힘든 두 가지를 갖고 있는 분열적인 괴리가 이 인물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계속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부산행’,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등에서 강렬한 악역을 선보인 김의성은 그 이미지가 부담되지 않는다고 했다. “배우로서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며 “장성철” 역할이 그냥 선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인물이다. 선과 악의 양면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뭘 해도 착하게만 보이지는 않는 배우를 쓰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웃었다.

또 선한 역에 대한 욕심은 따로 없으며, 악역이 좀 더 재미있다고 미소 지었다.

“악당들은 욕망이 강하잖아요. 주인공을 막아야 하고 그 동기나 행동이 강하죠. 배우로서 그런 역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주인공과 관계성이 많고 극에 영향을 미치니까 좋은 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특별한 역할을 바라다가보다는, 어떤 역할이 주어질까 기대하는 쪽이에요.”

“이제훈, 주연배우 책임감 감동…악역 차지연, 무서웠다”

‘모범택시’는 범죄 가해자를 처단하는 무지

개 운수의 팀플레이가 돋보인다. 그는 “사실 전형적인 히어로에 서포트하는 팀원들이 있다. 배트맨 같은 느낌”이라며 “혼자 맞서지 않고 믿고 갈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 마음이 편했다”고 말했다.

함께 호흡을 맞춘 이제훈, 이숨, 표예진, 장혁진, 배유람, 차지연 배우에 대해서도 “지랄할 게 너무 많다”며 칭찬했다.

“이제훈 배우는 한국 드라마, 영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배우죠. 가장 감동한 건 주연배우로서의 책임감이었어요. 초반에 대역 논란이 있을 때도 의연하게 자기가 더 많이 부딪치고 액션을 했죠. 14부 감옥에서의 액션은 정말 훌륭했죠. 저는 폼도 못 꾸겠구나 생각했어요.”

이어 “이숨 배우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인데 흔쾌히 받아들이고 대범하게 잘 해냈다. 표예진 배우는 밀린 공부도 많고 힘든 환경에서 기대보다 너무 잘해줘서 고맷다. 장혁진, 배유람 두 배우는 말할 것도 없이 충실한 역할을 해냈다. 차지연 배우는 원래 제가 하던 건데(악역) 무섭더라. 드라마가 처음인데 존재감이 강했다”고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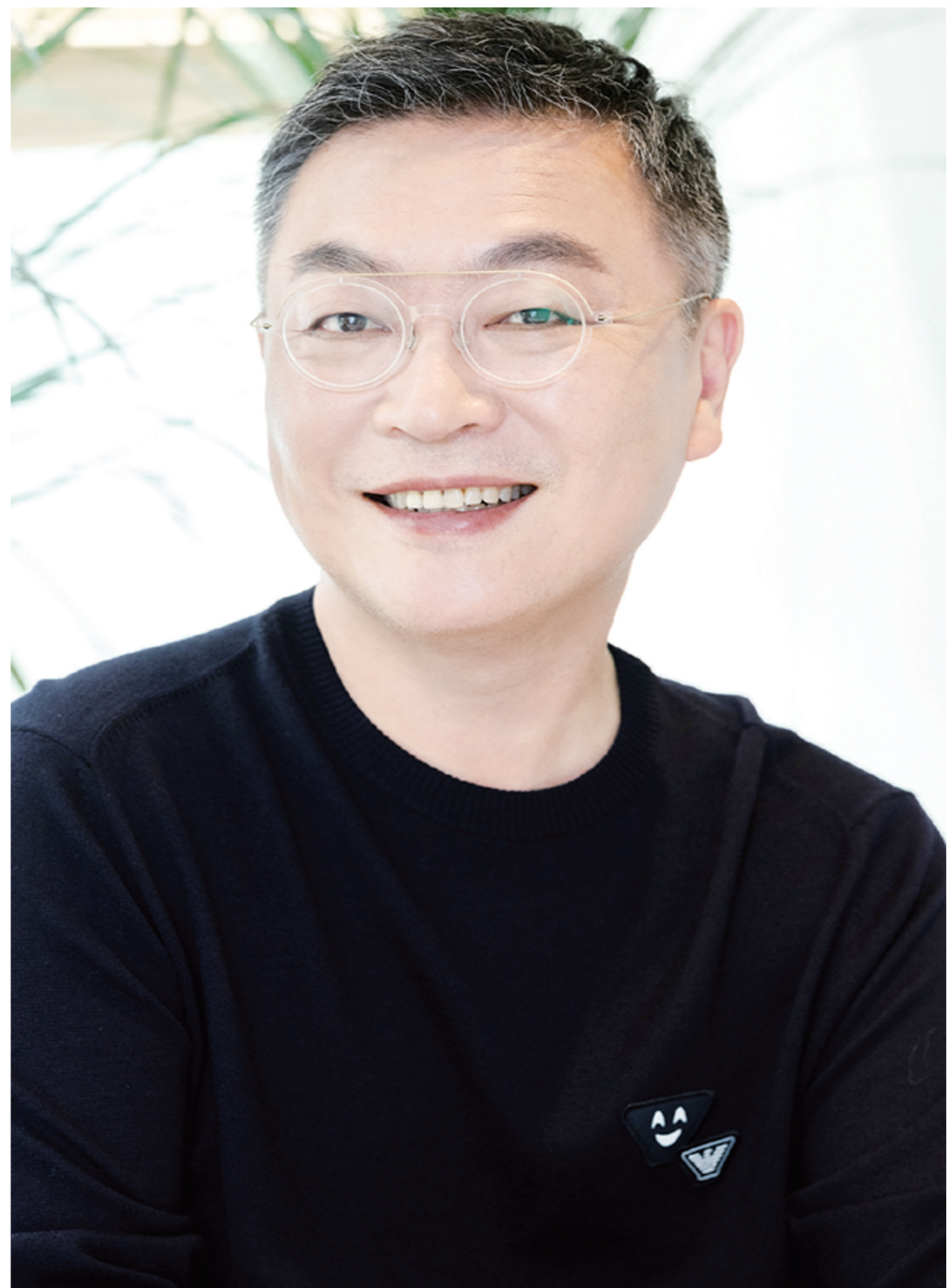
김의성은 1987년 극단 ‘한강’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지난 2013년 연극 ‘우먼인블랙’이 그의 마지막 무대였다.

드라마, 영화로 활발히 활동하는 가운데 무대에 다시 설 계획에 대해 “필요와 두려움이 공존한다”며 “결국 일정상 못하게 되는데, 두려움으로 피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꼭 공연은 아니더라도 마음 맞는 사람들(권해호, 김선영 등)과 대본 연습은 한다”고 말했다.

함께 무대에 서기로 했던 목은 약속 하나도 떠올렸다. “남자 다섯 명이 했던 아주 오래전 연극이 있어요. 권해호, 이두일 배우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벌써 세상을 떠났죠. 그 중 박광정 배우도 있어요. 40대 후반~50대 초반 캐릭터였는데, 저희가 20대 후반에 했죠. 역량 부족이라고 느꼈고 언젠가 나이를 먹으면 꼭 하려고 약속했는데, 다섯 명 중 두 명이 없네요.”

배드랑 배우인 김의성은 10년의 공백기도 있었다. 당시 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재밌게 살아라”라고 유언을 남겼고, 김의성은 그 답을 다시 연기에서 찾았다.

현재 그의 ‘재밌게 살기’는 100점 중 85점이 라고 했다. 그는 “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요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점수를 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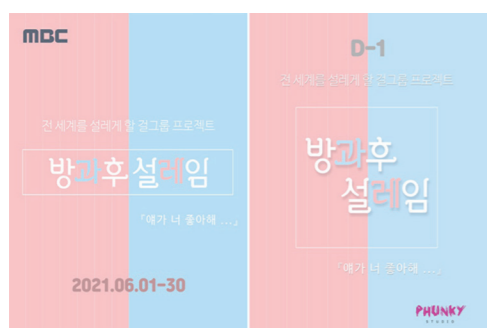
고 너스레를 떨며 “(재미는) 배우로 사는 게 가장 크다. 훌륭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현장에 있는 것도 좋다. 좋은 요소가 많은 직업”이라고 말했다.

그런 그의 연기 인생에서 반전의 순간으로는 영화 ‘관상’을 꼽았다. 그는 ‘관상’에서 ‘한명회’ 역을 맡았고, 그의 얼굴이 나오는 장면은 단 두 신뿐이었다.

“관상”에서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던 순간이 아니었다 생각해요. 제가 다시 영화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순간 많은 사람에게 ‘나야라고 얼굴을 알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뒤로 꾸준히 운이 좋았어요. ‘부산행’, ‘미스터 션샤인’, ‘W(더블유)’에 이어 이번 ‘모범택시’까지 좋은 역할을 많이 맡았죠.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MBC 걸그룹 오디션 ‘방과후 설레임’ 공개 모집…오는 30일까지

오는 11월 MBC에서 첫 방송



MBC와 한동철 PD가 함께하는 오디션 프로

그램 ‘방과후 설레임’이 지원자 공개모집을 시작한다.

‘방과후 설레임’은 MBC와 한 PD가 손을 잡고 론칭하는 글로벌 걸그룹 프로젝트로, 1일부터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다.

오디션 지원 자격은 케이팝 걸그룹으로 데뷔하고자 하는 12세 이상(2010년 이전 출생)의 여성이라면 국적, 경력 등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와 특기를 담은 영상(보컬, 랩, 댄스 무관)을 시작으로, 2차 개별 오디션과 3차 개별면접 등 단계로 진

행된다. 오는 30일까지 네이버 NOW(네이버 나무)에서 지원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과후 설레임’은 오는 11월 MBC에서 첫 방송된다.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 포맷과 어떤 차별화를 뒀을지, 이로 인해 탄생할 예비스타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커진다.

앞서 한 PD는 ‘방과후 설레임’ 첫 방송과 동시에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알린 바 있다.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및 시청자 참여 방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픽하이 타블로, 미드 제작자 된다

美 아마존과 계약

그룹 ‘에픽하이(EPIK HIGH)’의 멤버 타블로가 미국드라마 제작자로 변신한다.

에픽하이 소속사 아워즈는 5월31일 “타블로가 최근 미국 아마존 스튜디오와 계약을 맺고 미국드라마 제작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국 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타블로는 전 세계 최대 OTT 제작사 아마존 스튜디오와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의 제작자 스쿠터 브라운(Scooter Braun)과 함께 드라마 ‘네온 머신(Neon Machine)’ 총 제작자로 참여한다.

‘네온 머신’은 타블로의 인생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으로, 한 뮤지션의 인생을 다루고 있다. 타블로는 미국 HBO에서 방영된 드라마 ‘Barry’, ‘Girls’ 등을 집필했던 에미 수상 작가 제이슨 킴(Jason Kim)과 함께 2년 동안 작품을 준비했다는 전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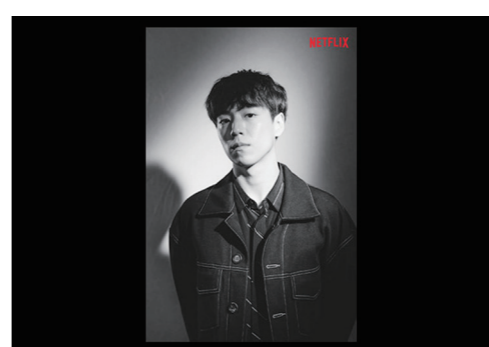
타블로가 제작에 참여한 드라마 ‘네온 머신’ 관련 정보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에픽하이는 지난 1월 발매한 정규 10집 ‘에픽하이 이즈 히어 상(Epik High Is Here)’으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장식



했고,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미국 차트 TOP10에 진입한 바 있다. 세계 최대 음악 축제로 꼽히는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에도 국내 뮤지션으로 유일하게 두 차례나 초청됐다.

이현우, 한국판 ‘종이의 집’ 합류…막내 ‘리우’



배우 이현우가 ‘종이의 집’(가제) 한국판에 합류한다.

이현우는 한국 버전으로 재해석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종이의 집’(가제)에 강도단 막내 리우 역으로 새롭게 합류한다. 다양한 캐릭터와 다채로운 매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아 온 이현우가 만들어갈 한국판 막내 리우는 어떤 모습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판 ‘종이의 집’은 한반도를 배경으로 천재적 전략가와 각기 다른 개성 및 능력을 지닌 인물들이 기상천외한 변수에 맞서며 사상 초유의 인질극을 벌이는 과정을 그릴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더한다.

뉴스스

‘펜하3’ 유진·김소연, 극과극 수감생활…오는 4일 첫방

집값 1번지·교육 1번지에서 벌이는 서스펜스 복수극

SBS TV 새 금요드라마 ‘펜트하우스3’(펜하3) 유진과 김소연이 상반된 모습으로 수감생활을 버티고 있는 현상이 포착됐다.

오는 4일 오후 10시 방송될 ‘펜트하우스3’는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이는 서스펜스 복수극이다.

유진은 ‘펜트하우스’에서 딸 배로나(김현수)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자 억척스럽게 살아온 오윤희 역을 맡은 바 있다.

딸 배로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아 나선 서든 중 나예교(이지아)로 돌아온 심수련(이자아)과 연대를 이루면서 주단태(엄기준)와 천서진(김소연)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심수련의 딸 민설아(조수민)를 죽인 속죄의 방법으로 자수를 선택하며 ‘민설아 살인사건’을 은폐했던 헤라클리스 사람들과 함께 수감됐다.

김소연은 청아재단 이사장 천서진 역으로

분해 딸 하은별(최예빈)이 저지른 ‘베로나 살인사건’을 은폐하는 극악한 행보를 펼쳤다.

이로 인해 강제 결혼을 하게 된 주단태가 ‘베로나 살인사건’ 진범임을 알게 된 후 오윤희(유진)와 공조했지만 끝내 오윤희의 배신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31일 공개된 ‘펜트하우스3’ 촬영 스틸컷에는 유진과 김소연이 극과 극으로 다른 분위기를 보였다. 극중 오윤희와 천서진이 각각 3년, 7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장면이다.

먼저 서울 구치소 조끼를 입고 붉은빛 조명 아래에 선 오윤희는 수감방을 향해 날카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철창 사이로 뻗어 나온 누군가의 손을 덥서 잡으며 섬뜩한 기운을 내뿜는다.

반면 천서진은 죄수복을 입고 있지만 여느 구치소와는 전혀 다른 호화스러운 방에



머문다. 촛불과 큰 식물, 편안한 소파가 마련된 방에서 다리를 꼬고 앉은 채, 번뜩이는 눈빛을 드러낸다.

제작진은 “끊임없이 연대와 복수를 이뤘던 악녀들에게 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며 “‘펜트하우스3’ 역시 예상을 빗나가는 인물들의 행보와 관계 변화에 주목해 달라”고 전했다.